

조선대, 조직 슬림화...인력감축은 제외

조선대학교가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대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인력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대학자치 운영협의회,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대학 단체는 11일 오전 대학 본관 캠퍼스 디자인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2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과신한 나머지 안일했고 지난해 결국 1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2단계 평가를 대비해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5가지 구조개혁 원칙을 확정하고 이날 교육부에 2단계 평가 보고서 제출했다.

구조개혁 방향은 학단위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학생 모집단위 계

학과 통폐합 등 5가지 구조개혁 원칙 제시

인건비 절감 등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 못해

열화 및 광역화, 기초학문단위 보호, 단과대학 및 계열별 책임경영제 실시, 병원 및 치과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80% 이상 부담 등이다.

17개 단과대학 85개 학과 중 의·치·약대와 특수목적의 2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12개 단과대학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외국어대학은 9개 학과를 2개 학부로, 미술대학은 7개 학과(부)를 3개 학부로, 공과대학은 16개 학과(부)를 11개 학과(부로), 체육대학은 4개 학과를 2개 학과(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자연대, 보건대, IT융합대, 사회과학대, 인문대, 법과대, 경상대도 구조조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인력 구조

조정은 빠져 있어 개혁안이 학과 재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선대에서는 교원 1979명과 행정직원 688명의 인건비 109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57% 달하고, 1년 결산액 대비 인건비는 45.7%를 차지한다.

재정건진성에 필수적인 인건비 절감 방안이 빠져 이번 혁신안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다.

조선대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재정건진성을 높이고 2단계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최종의 결기구인 교무위원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교직원의 급여 삭감이나 반납, 장학금 확대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조선대는 학과 통폐합을 통해 자연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교원 인력을 강제로 줄일 경우 교수 충원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쉽사리 교수 인력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총장은 "교육기관인 대학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인력을 강제로 구조조정하기가 어렵다"며 "고임금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인력구조가 빠르게 단순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말 2단계 현장 실사를 한 후 8월 말에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조인호 기자

외국인 노동자 배낭 훔친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귀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의 배낭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5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57분께 광주 서구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25) 씨의 여권, 휴대전화와 미화 1650달러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배낭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귀국을 위해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려다 이같은 일을 당했으며, 대사관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서 잠든 취객, 출동 경찰관 폭행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욕설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 집행방해)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옆 동 엘리베이터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으며, 귀가를 요구하며 부축해준 경찰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구례 한 초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28분께 전남 구례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학생과 동료 교사가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으며, 이를 본 학생이 다른 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치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양주 훔치려다 술집사장 때린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술집에 침입해 양주를 훔치려다 사장을 때린 혐의(강도상해)로 조D(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술집 담을 넘어 뒷문으로 침입, 사장 A(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영업 시간이 끝난 술집에 몰래 들어가 양주를 훔치려다 잡아서 켜 A씨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 "종종 방문했던 술집의 뒷문이 열려있었다는 사실을 노렸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에 공사장 공구 상습절도 50대 구속

인적이 드문 야간에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훔친 공구를 사들인 B(51)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일대 공사장을 돌며 총 9회에 걸쳐 공구와 기계 등의 금품(시가 84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로 올해 출소한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출입문을 훼손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軍 정치개입

못하게 법제화한다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폐청산위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나 상관이 정치관여를 지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무와 신고 시 포장규정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 후, 연말까지 특별법 제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와 여름방학이다~! 기본 좋은 아이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11일 오후 대전 유성구 봉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웃으며 집으로 뛰어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공기업 구내식당 지역 농산물 사용 '32.7%'

손금주 의원 "공기업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 만들어야"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별 식재료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농·축산물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별 구내식당에서 나주지역 생산 식자재를 사용한 비율은 평균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식자재 대부분을 나주지역 생산물만 구매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0.9%(전남 일부지역 포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59.4%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는 나주지역 생산 식자재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진단연구원

(9.6%)과 한국인터넷진흥원(4.4%)도 지역 식자재 사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손금주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구내식당 지역 식재료 사용량을 분석해 보면 지역상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